



##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의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전 해방둥이의 늦은 칠순잔치

근현대디자인박물관(관장 박암중)은 9월 11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갤러리모디움에서 '해방둥이의 늦은 칠순잔치'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해방둥이 광복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광복 이후 70년 역사와 디자인사를 돌아보며, 근현대디자인박물관 특색에 맞게 광복 70년을 기념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진행된다.

자료제공 | 근현대디자인박물관

### 한국 역사와 디자인문화의 만남

광복은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며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디자인전문박물관인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은 박물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 역사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포스터 100년전, 2009년 디자인 100선전, 2010년 상표디자인 100년전 등의 특별전시를 매년 진행해온 바 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표적인 디자인 유물과 함께 일러스트, 조각, 영상 등을 통해 근현대사를 재조명하고 광복의 소중함과 의미를 깨

달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다. 해방둥이 광복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광복 이후 70년의 굴곡진 역사와 디자인사를 되돌아보고 옛 추억과 정서 향유를 통한 가족, 세대간 소통으로 광복 70년을 기념함과 동시에 교육적 역할 수행을 함께 도모한다.

### 9개 세션으로 구분해 전시

'해방둥이의 늦은 칠순잔치'전은 연대기에 맞추어 총 9개의 세션으로 구분하고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소장 컬렉션을 그에 맞추어 전시했다. 프롤로그에서는 1945년 8월 15일생 해방둥이의 탄생을 시작으로 ▲세션1(1946~1955) 대





한민국 정부수립, 6.25 전쟁 발발 및 휴전 ▲ 세션2(1956~1965) 경제개발 추진 및 서독 광 부파건, 국군 월남파병 ▲ 세션3(1966~1975) 남북대결 가속화와 공존 모색 그리고 경제 개발 추진 ▲ 세션4(1976~1985) 경제발전 과 대외 수출의 총력화 및 민주화운동 가속 화 ▲ 세션5(1986~1995) 서울올림픽 및 대 전엑스포 개최 그리고 문민정부 출범 ▲ 세션 6(1996~2005) IMF극복, 한일월드컵 개최 및

한류열풍 ▲ 세션7(2006~2015) 한류의 세계 화 및 세계속에 당당한 대한민국 ▲ 에필로그 (현재) 해방동이의 늦은 칠순잔치 등으로 구 분했다. 각 세션에는 시대에 맞는 일러스트, 사진, 영상, 관련유물 및 조각작품 등을 전시 했다. 근현대디자인박물관 관계자는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일러스트, 조각, 영상물 등을 통해 새롭게 근현대 생활

사를 해석,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의 문화향유 를 흥미롭게 증진시키고자 했다”라며 “사회 문화적으로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 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 한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학교와 같 은 공공기관에 비해 다양한 방식과 실질적, 창의적 관점을 통한 교육적 역할을 박물관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070-7010-4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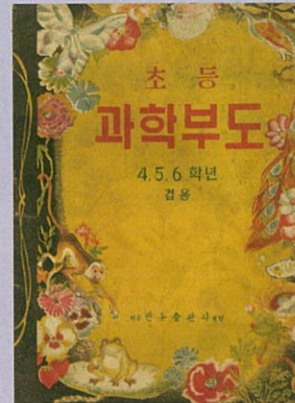
### 해방동이의 일기중에서

#### 1945년 8월 15일

경성의 온천지가 시민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찬 하루였다. 어제 발표된 라디오의 방송은 다름아닌 일본 천왕의 항복 방송이었던 것이다. 민족 해방의 어제, 우리 집안에겐 광복과 함께 또 다른 선물이 태어났다. 독립운동으로 잡혀갔던 남동생도 아무 탈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하루 늦었지만 온 가족이 모여 새로 태어난 해방동이의 탄생을 축하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달게 세계 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광복절 노래, 정인보 작사, 운용화 작곡



#### 1952년 3월 1일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등굣날이었다. 어머니께선 내가 학교 가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나도 학생이 된다는 기분은 나에겐 설렘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아버지께선 요즘 매일 아침 일찍 외출을 하고 돌아오신다. 돌아오실 때면 양손엔 종이쪽지들이 한웅큼이다. 아버지 말로는 이 종이들이 ‘빠라’라고 한다. 신기해서 자세히 보려고만 하면 아버지께선 보지 말라며 빠라 쪽지들을 아궁이에 넣어 불쏘시개로 태워 버리신다. 물론 그럴 줄 알고 몰래 한 장을 주머니 속에 넣어 학교로 가져갔다. ‘인민군, 공산당, 유엔……’ 나에겐 아직 어려운 말들이 많다. 학교에서 처음 사귀 친구, 철수는 공산당은 나쁜 거라며 나에게 소리치곤 했다.

학교는 임시방편으로 지어진 탓에 비가 오는 날이면 수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은 또래 친구들도 사귀고 교과서(바둑이와 철수)도 받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와 동네에서 팽이를 빌려 팽이치기를 했다. 철수는 팽이가 요즘 유행이라고 한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조심스레 팽이이야기를 꺼냈지만, 역시나 어머니께선 우리 형편에 무슨 장난감이냐며 거절하셨다. 내일은 학교에서 다 같이 입학 기념사진을 찍는다고 한다!

#### 1960년 4월 19일

어제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자유당 타도 이승만 하야’를 외치며 시위를 했고, 뒤이어 오늘은 대광고등학교 학생들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합류했다. 학교에서는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나 또한 철수와 함께 시위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신이 없었던 터라 급하게 집에 들러 부모님께 쪽지를 남겼다. 아버님께서 작년 생일선물로 주신 잉크와 펜을 꺼내어 쪽지를 쓰는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울의 길거리는 경찰들이 던져대는 공포탄과 최루탄의 연기가 자욱했다. 먹구름 같은 연기 아래에서 나는 시위대 틈에 끼어 그들과 함께 정신없이 ‘자유당 타도’ 구호를 외쳐댔다.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귀가하여 오늘의 일기를 쓰고 있지만, 온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 시위 도중 형에게 물려받은 운동화와 가방 그리고 그 속에 있던 교과서와 양은 도시락을 잃어 버렸는데,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걱정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까.